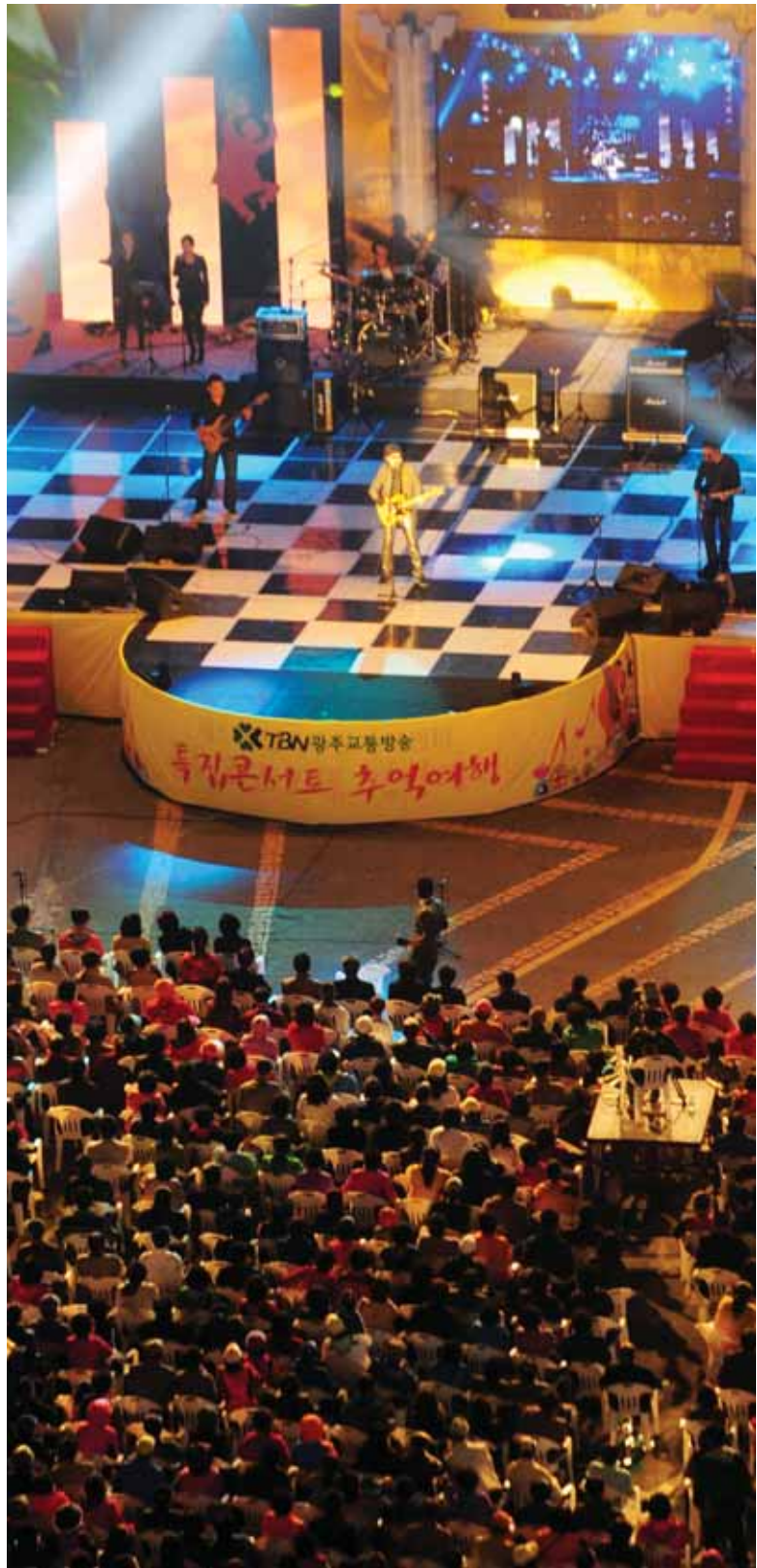


# 누구나 참여 함께 즐기는 '명품축제' 자리매김 성공

### ■ 옛새간의 추억여행 '7080총장축제'

### 20만명 이상 다녀간 주민자치박람회도 성황



'제9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가 14일 및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추억콘서트를 끝으로 옛새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축제에는 400여만명의 관람객이 찾아 광주를 대표하는 명품거리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의 대표 축제인 '제9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가 14일 폐막 공연 '추억콘서트'를 끝으로 옛새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추억&Asia'라는 주제로 6개 부문 47개 프로그램을 선보인 올해 총장축제는 추억을 테마로 한 축제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리면서 내년 제10회 축제를 앞두고 국제적 명품거리축제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장르나 형식 등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축제 기간 동안 거리 곳곳에서 각종 공연이 펼쳐지는 '에디터 프리인 페스티벌'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발전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세대와 지역

를 뛰어넘는 폭넓은 거리에술로 관객들에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거리퍼레이드. 우리의 민족 정서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테마로 연출한 퍼레이드는 90여개팀 8000여명이 참여해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 총장축제만의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와함께 멕시코·인도·방글라데시 등 세계 14개국에서 온 외국공연팀이 거리에서 펼친 공연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 올해 축제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첫 선을 보인 '추억의 테마거리'는 지금까지의 전시관 형태의 실내 공간에서 탈피, 기존 길거리 공간에 자연스럽게 조성함으로써 축제의 볼거리를 배가시켰다는 평가다.

총장거리 상가에서는 올해에도 역시 축제기간 상품을 평소보다 20~

50%까지 할인판매하는 세일이벤트를 진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올해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분사를 둔 유명 브랜드도 참여해 행사 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다만 총장축제 기간 동안 총장로와 금남로 일대 차량통행이 통제되면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 등으로 혼선을 빚었다. 또 일부 행사장에서는 무질서와 쓰레기 투기가 빈번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총장축제와 함께 '제1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열려 상황라에 막을 내렸다.

'주민참여로 발전하는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11~13일 사흘간 광주시 동구 총장축제 행사장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전국 49개 지자체 주민자치센터가 참여했으며 20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의혹 투성이'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장 업체 허위 보고·당국 부실관리 합작품

### 영산강환경청 국감 지적

### 광주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상의 주민설명회가 요식행위로 진행됐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지난 12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사는 양과동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영산강환경청에 2009년 7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0년 4월에 적합통보를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이 부실해 3차 보완까지 진행했는데, 영산강유역청은 1차 보완서에 대해 '주거민과의 예상되는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H사는 2차 보완서에서 주민의견수렴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영산강유역청의 내부자료는 전혀 달랐다. 2009년 12월의 1차 설명회는 주민참여가 저조했으며 12월 28~29일 열린 2·3차 설명회는 고작 주민 31명이 참석에 서명했으며 심지어 2010년의 4차 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H사는 1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허위 보고했으며 사업계획서에 흑백사진을 넣어 일부러 사람이 얼마나 참석했는지 구분하기 어렵게 했다"며

"그러나 3차 보완서만 보면 주민설명회를 4번이나 개최한 성실한 업체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영산강유역청은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3차 보완서를 제출한 다음날 1일 적합통보를 받았다"며 "4차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까지 됐는데도 업체가 내놓은 보고서만 믿고 바로 승낙해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서 의원은 끝으로 "현재 이 사안은 건축허가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며 "지자체의 건축허가 여부를 떠나서 영산강청 자체 내부 감사를 통해 이 사안의 경위를 다시 한번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8분 / 해질 17시 58분 / 달출 06시 06분 / 달질 17시 34분

**맑은 하늘**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나 교통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11/23℃
목포	맑음	13/22℃
여수	맑음	17/23℃
나주	맑음	13/23℃
완도	맑음	13/24℃
구례	맑음	7/25℃
강진	맑음	8/23℃
해남	맑음	9/24℃
장흥	맑음	9/24℃
순천	맑음	7/24℃
영광	맑음	8/21℃
진도	맑음	11/23℃
전남	맑음	9/22℃
군산	맑음	7/21℃
남원	맑음	6/23℃
혁신도	맑음	16/21℃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주의 보통 보통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6(화)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2/23	12/20	9/20	10/21	11/21	11/23

# 억대 보조금 허술한 관리로 대학 자전거활성화 사업 '핑크' 광산구, 사업비 1억 추가 지원 말세

광주여대가 억대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한 '대학교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이 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 관련 사업비까지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있는 가운데 또다시 해당 학교에 추가 사업비로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관리감독 기관에 대한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14일 광산구와 광주여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공모사업에 광주여대가 운영계획서를 제출,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이에따라 광주여대는 운영계획서에 따른 자부담 금액 1억원 등 총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전거 50대를 구입하고 학교내 3곳에 자전거보관소 등 관리 시스템을 설치,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당 학교를 방문해 3곳에 설치된 관련 시설물 등을 확인한 결과 무인대여시스템은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었으며 상당수 자전거는 분실되거나 고장난채 나뒹굴고 있다.

이는 유지보수 등 운영비로 5000만원이나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사업비 집행에 대한 의혹마저 일고 있다.

그런데도 관리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광산구는 최근 또다시 추가 사업비 1억원을 광주여대에 지급하기 위해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상태로 관리 책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일부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차 사업계획서의 보강을 요구한 상태다"며 "연차 사업인 만큼 2차 사업비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장하여 집행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지역 고교 수능 상위권 학생 비율 하락

전국적으로 일반계고에서 수능 상위권 학생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의 경우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입시업체 하늘교육은 전국 16개 시도 일반고와 특목고의 2010~2012학년도 수능 응시생 중 언어·수리·외국어 3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 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고에서 수능 1~2등급을 받은 상위권 학생 비율은 2년 사이에 지역별로 평균 0.5%포인트

감소했다. 광주는 2010학년도(47개교) 9.6%였으나 2012학년도(51개교) 8.5%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전남은 같은 기간 0.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고·과학교·이내 학생 비율은 시·도별로 평균 6.3%포인트 증가했다. 광주 과학교(13.8%포인트)는 인천(19.6%포인트), 부산(16.2%포인트)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롯데제이티비** 롯데제이티비는 롯데그룹의 Global 여행 기업입니다. **여행문의 1577-6511**

**무안출발 북경** \*풀옵션/상그릴라 초특급호텔 북경/만리장성+금명양조 4일/5일 부국해저/인력거투어/발맛사지 **439,000원**부터

**광주 출발 일본 트레킹+관광+온천** \*서일본의 후지산 다이센등반 다이센 트레킹 4일 카이케 온천에서 온천욕/마츠에 관광 **399,000원**부터

**LOTTE CARD로 해외여행 가고 최대 7% 할인 받자!**

**자주혜 특선** 터키 완전일주 8일 **1,390,000원**부터

**유럽** 롯데호텔 인가상품 **유럽 2박1트립** **1,990,000원**부터

**동남아** 팀장 추천 **호텔+항공** 상품 **초특급 방콕 파타야 산호섬 5일 299,000원**부터

**일본** **고마츠 가나자와 시라카와 3일/4일 599,000원**부터

**미주/대양주** **미국★호텔** **1,490,000원**부터

**스페셜** **9일간의 프랑스로 359,000원**부터

**광주권** 롯데제이티비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점, 롯데마트 수완, 북구점, 기아점, 무등점, 문화전당점, 서광주점, 매월점, 광산점, 농성점